

한여름 속 무더위 탈출! 시원, 짜릿한 동굴 탐사 체험

보인중학교

일 시 - 2007년 8월 17일(금)
장 소 - 월악산 국립공원 인근산과 동굴
활동목표 - 숲생태 조사와 동굴탐사 및 숲체험교육활동
활동내용 - 동굴 탐사 및 숲체험활동

GPS로 찾아가는 동굴. 경북 문경의 산골짜기를 엮는 길도 만들어가며 들어가고 또 들어가 드디어 얼음 바람이 뿜어져 나오는 동굴 입구에 다다랐다. 기진맥진. 유난히 비 오는 날이 많아 더 찜통 같았던 8월의 한가운데서 이제 열 넷, 막 사춘기에 접어든 스물여섯 명의 사내아이들이 땀흘러가며 그렇게 자아를 찾아가고 있었다.

1. 나를 돌아볼 수 있었던 귀중한 시간 - 보인중학교

“선생님, 계곡에서 놀다 가면 안돼요?” “으악, 길도 없어. 언제 도착해요?” “아... 힘들어.”
여기저기서 짜증 섞인 불만이 조금씩 터져 나왔다. 아닌 게 아니라 벌써 두어 시간이 넘게 산속을 들어가고 또 헤매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디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 있겠는가! 이후에 올 달콤하고 황홀한 순간을 아이들은 아직 눈치 채지 못하고 있었다.

“이야~~~~!!! 여기 되게 시원해.” “우와, 짱이다.” “으~~~ 추워.”

드디어 지도에도 없는 동굴입구에 다다르자, 아이들은 그동안의 고생은 한순간에 잊어버린 듯 그 좁은 동굴입구에 빼곡히 늘어서 안을 들여다보고 얼음 바람을 맞아가며 그 순간을 만끽하고 있었다.

“자, 이제 불을 끌 거예요. 옆 친구랑 잡은 손도 이제 놓으세요. 자... 나는 누구인가요?”

좁은 입구를 미끄러지듯 내려가자 바로 커다란 광장이 나왔다. 랜턴의 불을 끄고 옆 친구와 잡고 있던 손도 놓았다. 곧 칠흑 같은 어둠이 온몸을 감쌌고, 세상에 혼자만 있는 듯한 두려움이 밀려왔다. 그러나 이내 아이들은 진정한 자신과 만날 수 있었다.

“우와, 짱 재밌었어요.” “엄청 시원해요.” “신기해요. 또 들어갔다 오면 안돼요?”

기어서 겨우 빠져 나갈 수 있을 법한 좁은 공간도 지나고, 커다란 바위들이 가로막고 있는 곳도 지나면서 박쥐 뱀 뱀, 동굴 놀레기 등의 신기한 생물들을 본 아이들은 이전엔 경험해 보지 못한 체험들을 두 눈 가득, 온몸 가득 스핀지처럼 빨아들이고 있었다.

“저를 돌아봤어요.”

이 말을 선뜻 던지고 계곡 쪽으로 내려가는 아이를 보면서 변중희 선생님은 아마도 고생하면서 이곳까지 온 보람을 느꼈을 것이다. 바지도 찢어지고, 손도 까졌으며, 벌레도 많았지만 하늘은 눈이 부셨고, 계곡물은 달콤했으며, 무엇보다 동굴은 특별했다. 이미 어둑해진 저녁, 어스름 속에 산을 내려가는 아이들의 뒷모습이 훌쩍 커진 듯한 착각이 들었다.





2. 아이들을 통해 희망을 봅니다 - 변중희 선생님 인터뷰

“이렇게 사람의 손이 타지 않은 숲도 보고, 동굴도 보고 하면서 자연을 통한 인성 교육을 하는 것이 아이들에게는 비타민이 될 거예요.”

이것저것 챙기고 인솔하느라 아이들보다도 더 힘들었을 텐데도 그녀는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다. 체험교육은 책상에서 앉아서 하는 공부보다 3배에서 7배의 교육효과를 내기에 그녀는 이 모든 과정이 다 감사하다고 말한다. 땀 흘린 것의 진가는 땀을 흘려야 알고, 이렇게 땀 흘려가며 몸으로 익힌 교육이 아이들에게는 평생의 자산이 될 것을 그녀는 알고 있기 때문이다.

“동굴 안에서는 캄캄하잖아요. 의지했던 서로의 손도 놓고 있다보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원초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냥 관광지에서 비옷을 입고 다니는 동굴 탐사가 아니었다. 헬멧과 같은 보호 장비도 다 갖추고 랜턴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 미지의 동굴이었다. 그곳에서 그녀는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들이 자기 정체성을 찾고, 그동안 도심에서 달려오기만 했던 생활에 숨고르기를 할 수 있는 기회로 삼길 바란다고 했다.

“동굴 속에서 한 ‘아름다운 나’ 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를 아이들이 깨달아서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삶을 당당하게 살았으면 해요.”

숲을 통해서 아이들이 더불어 사는 것을 배웠으면 한다는 그녀는 지난 8월 초에 숲해설가 과정을 이수하면서 생물 선생이면서도 지금까지 죽은 생물을 가르친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고 고백했다. 그러곤 이제부터는 생태적인 안목에서 숲을 해설하고, 살아있는 생물을 가르치고 싶다고 했다. 자연의 순환을 이해하고 생명체 개개인을 인정하고 그렇게 접근을 하다보면 아이들의 안목도 확실히 달라진다는 것이다.

“동굴 안에서 나를 한 번은 돌아다봤다는 생각을 아이들이 했으면 좋겠어요.”

호기심을 가득 안고 힘들게 왔지만 그녀는 이 체험을 통해 아이들이 많은 것을 기억하길 바라는 욕심은 없다고 한다. 오감으로 숲의 모든 것을 느끼고 돌아가 언젠가 어떠한 형태로든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만을 바랄 뿐이다.

“교사는 희망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전 아이들에게 힘들 때 만날 수 있고 기억되는 선생님이로 남고 싶어요. 있는 듯 없는 듯하지만 반드시 있는, 바람 같은 존재처럼요.”

선생님이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일들을 해오면서 참 행복하고 감사했다는 그녀는 여전히 식지 않는 열정으로 ‘더불어 웃는 반’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글:사진/고선희(푸른숲선도원 전문기자)>



꿈틀꿈틀, 벌레와 함께한 신나는 여름방학 체험

풍광초 · 상당초

일 시 - 2007년 8월 22일(수)
 장 소 - 청원 미동산 국립수목원, 잠사문화박물관
 활동목표 - 숲 해설가와 함께 오감 숲 체험과
 잠사 박물관 견학
 활동내용 - 숲속에 절과 숲의 가치에 대해 느끼기, 숲 해설가와 함께 하는 '오감 숲 체험, 나뭇가지, 잎, 열매 등 자연공작물을 활용한 만들기, 잠사 박물관 견학하기

해가 짙하게 나가는 싶더니 폭우가 쏟아지고, 그러다가 다시 파란 하늘이 보이는 번덕스런 날씨 속에서도 아이들은 나무와 풀꽃, 곤충들의 신기한 세계에 대해 숲 해설가 선생님께 들으면서 마냥 신나는 모양이었다. 꿈틀꿈틀 벌레와 보낸 여름 방학의 마지막 순간. 어느새 아이들의 마음에 꽃이 활짝 피었다.

이젠 벌레가 징그럽지 않아요 - 풍광초 · 상당초 푸른숲선도원

“자, 이렇게 두 잎을 겹쳐서 접은 다음, 뒤로 돌려서 사이에 끼우세요. 이렇게.” 맥문동 잎 두 개로 숲 해설가 선생님은 금방 물고기 한 마리를 완성하였지만, 아이들은 보면서 따라 하는데도 당최 물고기가 만들어질 기미가 안보였다. 몇 번을 하다 막히고, 하다 막히고 하는데도 아이들은 그러나 포기할 기색은 커녕 너무나 열심인 모습이었다. 그렇게 충북 청원에 있는 미동산 국립수목원에서 아이들은 숲 해설가 선생님께 숲에 나와서 노는 방법을 배우면서 나무가 말하는 것을 알아가고 있었다.

“우히히히, 느낌이 이상해요. 간지럽고...”

잠사박물관에서 누에를 손 위에 올려놓고 카메라 가까이 보여주는 아이의 얼굴에는 징그럽다는 표정 대신 신기하고 즐거운 표정으로 가득했다. 고치를 물에 풀어 명주실을 뽑아내는 것도 보고, 그 명주실을 감는 자그마한 기계도 돌려보면서 아이들은 누에고치로 인형 만들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안 징그러운데요. 귀여워요.”

많은 지식을 배운 하루는 아니었지만 아이들에게 이 날은 자연 속에서 신나게 놀면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자연에 대해, 곤충에 대해 그리고 벌레에 대해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갖게 한 여름방학의 귀중한 선물 같은 날이었다.





우리 주변부터 알아가자

- 충북 과학교과 교육연구회 소속, 풍광초 강기화 선생님 인터뷰

체험 학습을 하다보니 아이들이 숲에 대해 어떤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이 좋았다. 평상시에도 과학교실을 열어 체험활동이나 실험 활동 등을 해오고는 있지만, 이렇게 숲 해설가 선생님을 모시고 숲에 대해 듣는 것은 처음이다. 아이들도 나도 처음 접하는 거였는데, 너무 잘 설명해 주셔서 숲에 대해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 아이들에게 숲과 친해지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다양한 것으로의 가능성을 열어 줄 수 있는 시발점이 된 것 같아서 오늘 체험은 그것으로도 충분히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학교 주변에도 여러 연구소와 학교 박물관이 있는데, 아이들과 함께 우리 주변부터 알아가도록 노력할 것이다. 앞으로도 이런 지원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환경교육은 우리의 희망이다

- 충북 과학교과 교육연구회 소속, 상당초 이수미 선생님 인터뷰

자연이 주는 이점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이런 기회가 주어진 것에 대해 감사한다. 흔히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고 한다. 교사가 이렇게 나와서 자세히 그리고 정확하게 생태적으로 배워서 가면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 교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질 높은 교육을 할 수 있다. 이제 환경 교육은 우리의 희망이다. 그래서 아이들과 학부모님 그리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작은 산 살리기 모임' 같은 생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 인간과 동식물이 공존할 수 있는 이런 작은 움직임들이 인간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번의 체험으로 당장에 교육적인 효과를 볼 수는 없겠지만, 이런 지속적인 경험들이 쌓이면 아이들은 변화할 것이다. 교사의 입장에서 내가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해나가고 싶다.

(글:사진/고선희(푸른숲선도원 전문가))

9월 지원 활동학교

학교명	일시	장소	내용
은혜중	2007.09.01	부락산 등산로 일대	체험 활동을 통한 산림 사랑 정신 함양
광양제철초	2007.09.07	백운산 휴양림	백운산 숲 생태 교육 및 숲 체험 활동
온양여중+신정여중	2007.09.8	오산 물향기 수목원	수목원 내 생태체험활동 및 식생탐구
두촌초	2007.09.14	산음 휴양림	산음휴양림 내 숲의 생태 탐구
남면중	2007.09.15	안면 자연휴양림, 남면 몽산포 해수욕장 내 소나무숲	해수욕장 주변 소나무 숲 가꾸기, 자연휴양림 견학을 통한 숲 생태 교육 및 숲체험
의정부 공고	2007.09.18	국립 수목원	숲의 가치 및 중요성에 대해서 깨닫는 체험학습